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7월 29일(목)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담 당 자	• 생활환경정책팀장 김은수 ☎440-3541 • 담당자 이영서 ☎440-354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행사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자원활동단 첫발

- 사막화 방지 위한 해외조림·협력 사업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등 21명 구성 -
- 생활 속 탄소 저감 중요성, 사막화 억제 등 홍보 등 생활 속 환경개선 실천 노력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희망의숲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 산림조합에서 주관하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자원활동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7월 29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날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기후 변화 및 사막화 방지에 대한 교육, 국내활동계획, 자원활동단 자기소개 및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OECD회원국 중 8위에 해당돼 기후변화에 따른 황사와 사막화 현상의 가해국이자 중국발 미세먼지, 몽골발 황사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피해국이기도 하다.

국경이 없는 환경오염과 자연재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인천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8년 시민모금활동을 통해 시작된 몽골 나무심기에 함께 참여해 바양노르숨과 다신칠링숨에 104ha에 16만6천주의 나무를 식재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에 걸쳐 몽골 성긴하이르한 일원 100ha 부지에 14만여 주의 사막화 조림사업이 추진 중이다.

2단계 사업은 도시숲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 휴양 공간 조성,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 등 지역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원활동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해외조림·협력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들을 모집했으며, 초·중·고·대학생 7명, 일반인 6명 총 21명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로 모집됐다.

자원활동단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홍수, 황사,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숲 탐방 등을 통한 생활 속 탄소 저감의 중요성, 사막화 억제 및 방지 등의 홍보활동, 한몽 온라인 교류활동 등 폭넓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환경개선을 위한 작은 노력들을 실천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날 발대식에서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도시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

으며 “우리의 사막화 방지에 대한 염원은 지구환경을 살리는 소중한 실천의 출발이며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가 되어 지구환경 문제해결의 단초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자원활동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7월 29일>

